

buddhanews.com

# 마음에서 고장난 건 마음으로 고쳐야 됩니다

## 25면에서 계속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이요! 해골을 놓고도 그 해골과 자기와 둘이 아닐 때 비로소 자기를 아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너 저기에 묘지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 거고 하나는 자식 거니라. 그런데 양쪽에 구멍이 뚫렸으니라.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한테로 가면 자식으로 하나가 되고, 자식이 아버지한테로 가면 아버지로 하나가 되니 그건 무슨 연고인가?' 하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때에 스물 몇 살인데 말입니다. 알 게 됩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아, 발이 떴어 놓아져야죠. 그래서 3일을 그냥 그것 때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하!' 이렇하고선 일어났죠. 생각을 해 보세요. 영에다 영을 넣어도 들어 아니요, 이쪽 영을 이쪽에다 넣어도 들어 아니요, 만 불을 하나에다 넣어도 들어 아니요. 이랬으니 어찌 공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이 또한 법을 말합니다.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큰스님께 질문을 준비해 오면 법문하시면서 항상 먼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질문할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해 왔으니 여기에 모이신 여러 불자들에게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 진리의 법을 모두 설하셨지만 미혹한 저희들이 실천하는 것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 불성이, 주인공이라는 나의 근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주 전체를 싸고 있는 근본 차라고 항상 저희들에게 간곡히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이 근본체를 알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재가자들이 가운뎃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해 놓고 남의 사주를 봐 주며, 사람에서도 부처님의 진리 공부는 뒤로 미루고 세간과 중생들이 즐겨 찾는 각종 행사에만 치중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수효가 점차 증가하여 대부분의 불자들이 이러한 것이 부처님의 법인 것처럼 알고 생활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가자나 출가자가 부처님의 진리를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는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우리 불자들이 첫째, 금강과 같은 흔들림 없는 공부 방법과 둘째, 이분들을 제도할 때의 주의 사항, 그리고 이분들과 자손들이 받는 과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법을 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하여튼 그냥 간단히 대답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또 조금 붙어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영원히 자기는 자기대로 발전하기 어렵죠. 그리고 과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의 과보가 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때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차원대로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왜냐

하면 눈이 떠지지 않고 보질 못하고 들질 못하니 까 그냥 아무거나 짝 짓는 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거나 짝 짓는 데로 들어가서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닭이다, 토끼다, 뱀이다, 두꺼비다, 올챙이다 뭐 갖가지 짐승들이 짝을 짓는 데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인지 뭘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 천 년이 가도 그 모습을 벗고 인도환생을 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항상 우리 스님네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도들한테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한 철 날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온통 마음으로 밭아 몽그러뜨리고 내치고, 기를 쓰고 올라가고 떨어지면서 남의 거를 뺏어 먹고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그 모든 모습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 닭으로도 태어나고 그렇게 된다면 이 건 칼산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산 거를 갈로 턱 쳐서 넣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화랑지옥이다 하면 이 건 물에다가 그냥 텅텅텅 넣어 가지고 그냥 끓여서 털을 뽑습니다. 모가지 이렇게 해

뒀나. 내 이 물방울 하나를 들어온다면 그냥 찰나에 내가 되는 거고, 찰나에 또 불력회에서 벌들을 출생시키듯이 그냥 나가니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나는 못한다.' '나는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 양면을 다 버리십시오. 버리고 의연하게 그대로 닦치는 대로, 가는 거 잡을 것도 없지만 또 마다할 것도 없고 그냥 닦치면 닦치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아주 여유롭게 즐겁게, 하늘이 딱딱 그냥 비벼져서 곤죽이 돼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그렇게 사세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질문자(3남): 큰스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의 근본은 전지전능한 한마음이라는 데 어째서 미생물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윤회에 빠지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업식에 가려 무명에서 벗어

나가는 거야. 잘 하라고, 잘 살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는 데는 싫거든. 그런 싫으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가고, 만약에 독사나 짐승으로 태어나서 그 모습을 벗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마음의 차원 때문이냐.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아직 확실히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큰스님: 왜 알질 못해? 내가 대답을 해 줬는데... 너로만 있는 게 아니냐. 너로만 있는 게 아니라 너도 나중에 창년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또 할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자꾸 뒤바뀌어 가면서 요다음에 또 어린애가 되고, 여자가 될지 남자가 될지 그것도 모르고,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어. 이제 알아들었어?

질문자(3남): 스님, 그 과정은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윤회하게 되는 시작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지?

큰스님: 아이고, 시작은 너한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하하하...

질문자(3남): 그러면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건 제 개인적인 경우지만, 주

돈을 조금 가져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 형편껏 어떠한 문제가 닦쳤는지, 큰 건지 작은 건지 그것을 생각해서 큰 거라면 크게 놓고, 가계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도, 내가 돈을 주고 내 물건을 사 왔으니 돈을 준 사이도 없고 그 쪽에서도 물건을 준 사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스님네들이 "나는 너한테 받은 사이도 없고 내가 너 준 사이도 없으니라. 그러나 부처님한테서는 너에게 그런 공덕이 갈 수 있고 선물이 갈 수 있고 복덕을 이룰 수가 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승가대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스님네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는 자기네들을 위해서 하신다면, 그 대가는 거짓말 없이 꼭 잘 겁니다. 내놓은 대로, 일익이 걸려든지 몇천이 걸려든지 여러분이 내놓으면 내놓은 대로 그 대가는 거짓 없이 증명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서 거짓이 없거든요. 아주 보증 수표거든요. 하하하... 그러니 모두 동참해 주십시오. 제가 이리라고 건방지다고 하지 마시고요. 조그마름 도와주신다 해도 여러분의 그 애로는 풀릴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 일체 만물과도 다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 모든 우주의 별성들하고도 모두 직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요다음에 한번 그 자리에 가서 혼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럿이 뭉치면 이루어 내고 흩어지면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어느 사람도, 기독교인 가톨릭교인이라 할지라도 한 불교 안에, 한 지구 안에서 지구를 뭉뚱이 삼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를 우리는 마음으로 벗어나서, 지구 가운데 팽창되거나 타 버리는 일이 없이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지구라는 우리 집이 풀어진 게 아니면 에너지를 다 갖다가 고치고 해서 쓸 수 있게끔 우리는 마음을 한마음으로 내서 해결합니다.

그리고도 스님네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 여러분을 위해서 동참하신다면 아마 자손들 대까지도 세계생생 나갈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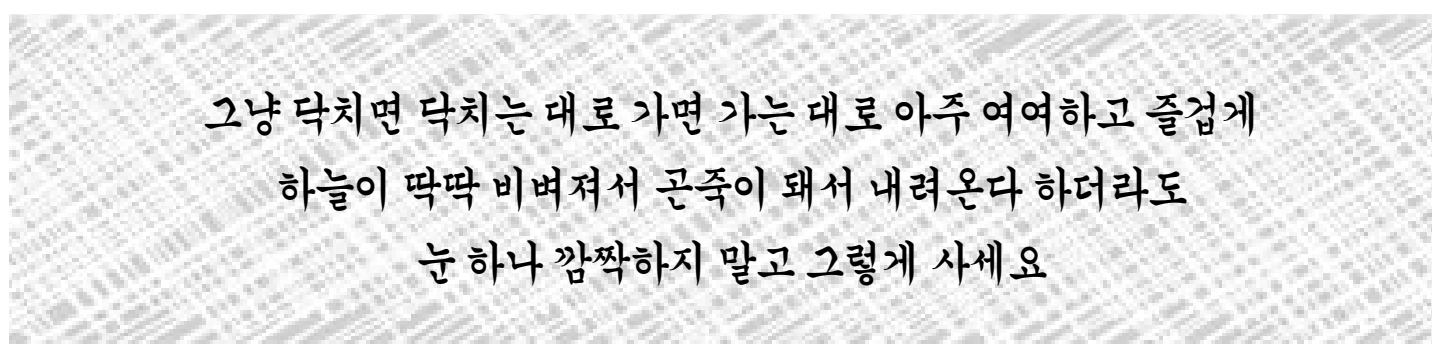
이제 내려가도 됩니까?

(앞쪽에 앉아 있는 학생들을 보시며) 감사해요. 정말 어린 씨들이 앞으로 자기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 푸르르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주 증명해야 돼요. 알았죠?

학생 일동: 네.

큰스님: (환장하시며) 예.

\*위 법문은 1995년 10월 8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 닭똥이 아니에요. 생선도 그렇고요. 살아서 펴 펴 튀는 걸 그냥 도마에다 놓고 탁 탁 하고 자르니 칼산지옥이 아니고 됩니까?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아무리 음매음매 하소연을 모두가 해도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하소연을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목이 졸려서 죽는다거나 칼로 찔려서 죽는다거나 도끼로 머리를 맞아서 죽는다거나 해도 옹패부득 자기는 그 모습을 타고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수명이 짧고 길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몇 번 일을 낳고 몇 번 자기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죽음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옥이 따로 있어서 받는 줄 알지 마세요.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지옥, 천당입니다. 자기네들이 자기네를 아래로 내려간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돌 아nergie 생각을 해야죠. 어떤 때는 산 거를 놓고선 칼로 탁 칠 때에 고개를 홑 돌립니다. 너무나 아휴! 보기가 귀찮아서 그래요. 그렇더라도 그 본 것만은 '아! 잘했구나. 네 모습이 그게

나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업식이 있기 이전에는 그대로 밝은 한마음 자리였을 텐데, 어떻게 하여 무명에 빠지고 업식이 생기게 되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지(地), 수(水), 풍(風) 세 가지가 한데 합쳐져서 그냥 그 압축을 톨다가 부딪치고, 부딪치니까 화(火)가 일어난 거야. 안 그래? 일어나서 그것들도 다 생명이 돼 버렸어. 생명이 돼 버렸단 말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집을 지어 놓고 자기네들이 그 미생물로 회한 거야. 연방연방 그냥. 그러면 그 미생물로 태어나서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해! 응?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리도 터지고 지해도 생기고 천체를 다 헤아리고 나갈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안이들일 수 있고, 이렇게 지혜가 터져야 자기가 벗어나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뱀으로 태어났다 하면 뱀으로 살던 습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살던 대로 놀러 가려고 그러지 자기하고 맞지 않는 데는 가려고 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허물을 벗지 못하는 거야. 모두가 다 그래. 사람이 법도를 못 지키고 사람답지 못한 데로 빠져나가는 것도 자기가 좋은

인공에게 관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답을 얻은 경우가 드문 것 같고, 잘 안되는 것도 법 잘되는 것도 법이러지만 제가 바로 가고 있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스님: 바로 가든지 외로 가든지 뭐 아래로 내려가든지 무조건 네놈이 하는 거니까 네놈한테다 놔 버려. '너만이 일체를 다... 잘못하는 것도 너 니가 잘하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 이놈!' 이렇게 해 버려, 그냥.

나는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승가대학 기금 마련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돌이 아니라고요. 영원히 돌이 아니라고요. 스님네들이 따로 있고 여러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스님이라는 소임을 맡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모두 응신이 돼 주시는 그 스님네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배출돼야 여러분께서 아마 다 승천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는 여러분이 하신 거는, 가계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에 만약에 비싼 물건을 사려면 돈을 많이 가져가야 하고, 싼 물건을 사려면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교인 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숲속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정	지도	인원	대상
2009년 10월 24일 - 10월 30일 [6박 7일]	우도나나 사야도	15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강릉시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시작 날 - 10월 24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10월 30일 오전 12시
- 참가비: 20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담마선원)
- 준비물: 수행에 관한 북장, 세면도구, 필기도구, 방한소울
- 문의 및 접수: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 dhamma53@hanmail.net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공법**

★책임10일 완성★  
저자: 법화(정흥교)큰스님 직강!

**[구단구공원리도]**  
손으로 짚어 5분안에 길흉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혼인 부귀등 다양한 명운을 주저없이 판단 미래 예측함

개강: 화, 수, 목요일만 (오후2시~5시)  
토요일만 (오후1시~5시)

**구단구공연구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2-23번지 호상빌딩  
(051)467-4665 010-7725-1024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약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약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원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택 -

**돌고래 슈퍼 에너지텍**  
공급원: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02)471-2356  
상담전화: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혜택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액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발효원액 절식법**  
풍뎡하라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속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는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